

# 주간기도정보

2024. 2. 13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반도 평화 위해 기도 제목도 ‘통일’한다

7일 송실대에서 ‘한국교회 통일기도 연합 워크숍’ 열려



지난 연말 북한은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단정하며, 전쟁이 일어난다면 완전히 초도화해 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지킬 것을 공언했다. 한미일의 군사적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더 적극적으로 미국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규모와 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과연 한반도에 봄이 오거나 할 것인지 희망을 가질 수 없을 정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한반도의 미래가 남북 정치지도자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며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자 연합 워크숍이 열렸다.

한국교회 내에서 북한선교와 통일기도 사역을 꾸준히 감당해 온 단체들이 마음을 합하여 “복음 통일 기도 운동의 방향성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월7일(수) 오전 10시 송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김덕윤 예배실에서 연합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통일 선교단체들이 올해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기도 제목과 영상’을 함께 만들어 한마음으로 기도하기로 했다. 공동 주최 단체는 모퉁이돌선교회, 북한기독교총연합회, 송실대기독교통일지도자센터,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통일소망선교회, 한국오픈도어선교회가 주최하였고 기도24·365본부는 참여단체로 참가하여 기도 제목과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기도 제목과 영상’을 제안한 하충엽 송실대 교수는 다음 달부터 52주간 성도들을 위한 기도 소책자와 각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북한을 향한 기도 제목, 한반도 정세의 흐름, 설교문, 신학적 관점 등 4개 섹션으로 이뤄진 소책자를 매주 제공하고 기도회나 주일 예배 때 북한 현실을 알릴 수 있는 영상도 만들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성도들의 북한에 대한 마음이 커지고 통일 선교단체가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간 통일 선교단체들은 수시로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연합하기로 했다. 정형신 북한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은 “전쟁 위협 제거와 북한 주민의 생존, 탈북자 복음화 등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만들어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북한 땅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선교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등 핵심 기도 제목의 예시를 들었다(출처: 국민일보, 기도 24365본부 종합).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에베소서 1:10)**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느헤미야 1:5-7)

하나님, 남북 관계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적대적인 말과 무력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의 상황을 올려드리며 이 땅의 평화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북한 동포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통일이 잇힌 지 오래된 듯한 우리의 안일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 한국교회가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52주간 연합하여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활이 흐르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남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주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사 온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한민족 되게 하옵소서.

## 2. 북한을 위한 기도

###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으리라”

**북, 주민들에 위성발사 장면 엽서 배포**

집집마다 붙여 놓으라고 지시...주민들은 냉담



북한 당국이 미사일 발사 장면을 담은 엽서를 전국에 배포했다고 자유 아시아 방송이 전했다. 엽서를 배포하며 당국의 굳건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북한 당국이 배포한 비닐 엽서에는 캄캄한 밤에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가로, 세로 각각 29cm, 19cm 크기의 얇은 비닐종이에 위성 발사를 앞두고 폭발이 일어나는 찰나의 장면을 담은 사진을 1,500원(미화 0.8달러)에 팔고 있다.

북한 당국이 미사일 발사 장면을 담은 엽서를 집집마다 붙여 놓으라고 지시했지만, 엽서 비용을 따로 받아내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지난달 28일 동에서 각 인민반 주민 세대에 ‘인공위성(미사일)’ 발사 장면이 담긴 사진엽서를 배포하며 엽서를 거부하는 주민들에게도 당의 지시라며 구매를 강요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일부 주민들은 인민반에서 배포한 인공위성(미사일) 엽서에 대해 텔레비전과 노동신문을 통해 본 것을 왜 집에까지 붙이게 하나며 반발했지만, 해당 인민반장은 당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엄포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민들은 인공위성(미사일) 발사 장면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 미사일이나 위성을 쏘아 올릴 때마다 주민들이 먹을 몇 년 치 식량이 하늘로 날아간다고 여기고 있어 미사일 발사에 반감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엽서에 나온 화염 장면이 보기 흉해 돈을 준대도 오히려 거부할 판에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엽서 값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돈 1천 원도 없는 가난한 주민들에게 미사일 발사나 위성 발사는 굶주림을 더하게 하는 행동이라며 일부에서는 “엽서 대신 차리리 먹을 것을 달라”며 노골적인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일 양강도 익명의 제보자는 “요즘 각 동마다 미사일 발사 장면이 담긴 비닐 엽서를 한 장씩 배부하고는 매일 엽서 비용을 받으려 세대마다 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미사일을 발사하든, 인공위성을 발사하든 관심이 없다”면서 “생계가 급한 주민들에게 군사적 대결이나 남북 정세는 뒷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아무리 군사적 대치 상태를 강조하고 전쟁 분위기를 고취시켜도 대부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출처: 자유아시아방송 종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이사야 30:15,18)**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잠언 15:13-14)**

하나님, 군사력을 자랑하려 선전용 엽서를 배포하고 있지만 정작 자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판거리가 되는 북한을 붙잡히 여겨 주십시오. 북한 정부의 미련한 마음을 낮추시고 매끼를 걱정해야 하는 북한 주민들의 형편을 돌아보게 하사 이들의 마음을 근심으로 상하지 않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모든 국민과 위정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밖에는 인생에 해답이 없음을 깨달아 말씀 앞에 돌이켜 잠잠히 주의 구원을 구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북한 교회를 통해 십자가 고난의 악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즐거움으로 그들의 영혼이 빛나게 하여 주십시오.

###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리라”

##### 교회 다음세대의 바람, ‘위로’보다 ‘성경적 삶의 방향 제시’

예배와 영성 회복 갈급...“불안한 실존적 삶에 영적 해답 제시해야”



교회 다음세대가 바라는 설교, 목양의 방식은 무엇일까. 최근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가 발표한 ‘교회 출석 청년의 삶과 신앙’ 자료에 따르면, 현실적인 고민에 대한 메시지보다 ‘성경에 충실한 설교’, 따뜻한 위로보다 ‘성경에 근거한 삶의 방향 제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출석 청년들에게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물은 결과 ‘사람을 위로하는’이 3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세상과 다른’(22%), ‘정의롭고 개혁적인’(9%), ‘사회를 통합하는’(7%)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 이미지였다. ‘편향/배타적인’(6%), ‘권위적인’(5%), ‘물질적인’(5%) 등의 부정적 이미지도 존재했다.

또한, ‘기대하는 설교, 예배, 돌봄 방향’에서 설교와 관련해 다음세대는 ‘성경에 충실한 설교’(59%)를 ‘위로와 용기를 주는 메시지’(56%)나 ‘청년 현실과 고민 메시지’(41%)보다 더 원했다. 예배에 대해선 ‘좀 더 따뜻한 위로’(52%), 돌봄에선 ‘성경 근거 삶의 방향 제시’(55%)를 원했다.

한국교회가 개선해야 할 점에서는 ‘예배와 영성의 회복’(5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정의, 봉사 등의 사회적 책임’(45%),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신앙’(42%), ‘공동체성 회복’(30%), ‘교회 내 수평적인 소통’(27%)을 선택해, 기본적으로 예배와 영성 회복에 대한 목마름과, 지성적 신앙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교회 출석 청년이 성경에 기반을 둔 위로를 원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축소사회 속에 과열된 경쟁이 청년들을 외로움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하면서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예배가 채워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목데연은 “교회가 기독 청년들의 불안한 실존적 삶에 영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삶과 신앙은 분리된 것이 아님을 다시금 주지시켜야 한다. 그 다음으로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힘을 내야 한다. 교회 내부적으로 청년에 대한 돌봄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승수 영남신대 기독교교육학 특임교수는 “이 같은 통계는 교회가 성경에 충실했다기보다는 사람이 해석한 인본주의적인 메시지를 주로 전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청년들이 예배나 교육 문화, 교회 안의 의사결정과 결정구조 등에 적극 참여시키는 등의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출처: 국민일보, 크리스천 투데이 종합).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므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시편 119:131-133)**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린도전서 2:1-2)**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을 다음세대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대에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통로된 목회자와 교사들이 세상의 가치로 뒤섞인 모든 것을 제하고,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불안하고 외로웠던 청소년, 청년세대가 인생의 참된 의미와 방향을 진리 안에서 발견하여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생명력 넘치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소서. 십자가 영광에 사로잡힌 자녀들을 통해 목마르고 길 잃은 이 세대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이들이 참된 진리로 나아오게 하실 것 믿습니다.

다음은 ‘대륙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도실1 -
- 기도실2 -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